

푸른 5월 휴일을 맞아 부모님 묘소를 다녀왔다. 오는 길에 인제나처럼 통도사 경내의 이곳저곳 불당에 한 아름 꽃을 놓았다. 잠시 주변의 산들을 바라보니 온통 꽃들로 둘러싸여있다. 특히 붉은 철쭉은 붉은 자태를 한껏 뽐내며 아름다운 모습을 화려하게 드러낸다.

5월은 뭇나 해도 부처님오신날이 있어 더욱 즐겁다. 그밖에도 어린이날을 비롯하여 아버지날, 스승의 날 등 온통 배려의 따뜻한 기쁨을 나누는 날들로 가득하다. 그들에게 5월의 모든 꽃들을 가슴에 가득 담아준다.

꽃만큼 우리의 일상 김숙이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식물도 드물 것이다. 때로는 축하와 감사를 전하지만 한편으로는 격려와 위로의 애통함을 전달하는 감정의 전령사가 되어주곤 하기 때문이다.

한편, 꽃은 오랜 역사로 우리의 심성 한가운데를 가로지른다. 남궁억의 '무궁화동산'에는 "우리의 웃음은 따뜻한 봄바람 춘풍을 만난 무궁화동산"으로 노래한다. 무궁화는 아득한 고조선 단군시대로부터 5000년의 역사 속에서 겨례의 혼으로 내려왔다. 태고 단군조선이 세워지기 이전부터 나라꽃으로 등장해 신라, 고려 때의 '근화'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구한말 다시 나라꽃이 된다. 그러다가 오늘날까지 동거동락하며 지금

의 국가상징이 되었다. 길고긴 초여름부터 100여일을 꼭두새벽부터 피어서 저녁 해질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한결같이 꽃피우는 무궁화야말로 꽃 중의 꽃이다.

일제 강점시기에는 민족의 상징이자 독립에 대한 염원으로 가슴 속에 피는 희망의 꽃으로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 그래서 꽃은 나라이기도 하다.

올림픽으로 세계의 이목을 받고 있는 중국을

대표하는 모란은 부귀영화와 아름다움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축전후후의 질투에 얽힌 설화 때문에 권력에 굴하지 않는 절개를 의미하는 전설의 꽃이기도 하다.

스톡홀랜드의 영경귀는 잠입하는 덴마크 바이킹들이 그 가시에 찔려 지르는 비명을 듣고 대피해 위기를 모면했다는 설화를 지닌 호국의 꽃이다.

호주의 와트는 18세기말 초기 원주민들이 벽



불자 세상보기

이강렬
극작가, 한국문인협회 상임이사

꽃의 계절, 5월의 푸르름

“거사님이 내내 마음으로 울고 계시던데요”

혼자 살아남다

“제가 미쳤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지금도 김씨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 오싹하다. 사고가 나기 전까지 그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가정이었다. 그 날도 아내와 아들과 함께 부모님을 뵈러 가는 길이었다. 김씨가 운전하고 옆자리에 아내가 앉고 그 바로 뒷자리에 아들이 타고 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대형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김씨의 차를 향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곧 정면충돌할 것이 명백했다! 눈앞이 아찔했다. 불과 몇 초 정도 되는 찰나에 김씨는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 무조건 피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운전대를 왼쪽으로 있는 힘껏 확 돌려버렸다. 그래서 트럭은 김씨 차의 오른쪽과 정면충돌해 버린 것이다. 김씨는 심한 충격으로 기절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긴 뒤에야 아내와 아들이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나마 너는 살아서 다행이지. 트럭이 자동차 오른쪽으로 부딪친 거야.” 부모님은 눈물을 흘렸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총동원된 순간이 떠올랐다.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 운전대를 확 돌린 기억이 났다. 왜 왼쪽으로 꺾었을까. 그래서 오른쪽에 앉아있던 아내와 아들을 정면으로 부딪치게 만든 셈이다. 단일 운전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⑬ 삶과 죽음의 갈림길

대를 오른쪽으로 꺾었다면 하고 가정해보았다. 그럼 왼쪽에 앉아있던 자신은 즉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내와 아들은 살릴 수 있었을지 모른다. 위험한 순간에 아내와 아들이나 나 자신의 목숨과 안전이 더 중요했던 말인가. 결국 아내와 아들을 내가 죽였다! 이때부터 김씨는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게 되었다. 견딜 수가 없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써 살인을 한 것만 같았다. 나를 살리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희생시켰다는 생각이 괴롭혔다.

부모님의 눈물

당시 사십대 중반이었던 김씨는 앞으로 평생 혼자 살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그나마 헛웃음을 치루는 일 같았다.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면서 1년 쯤 지난 어느 날 아버지가 불렀다. “너 힘든 줄은 알지만 이제 재혼을 생각해야지” 하는 것이 아닌가. 외아들인 김씨가 자손이 없으면 대가 끊긴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좋은 사람을 알아보았

으니 꼭 만나보라는 것이었다. 김씨는 꿈에도 생각이 없었다. 아버지는 “넌 집안의 대를 끊는 불효를 할 거냐. 내가 며느리 손자 잃고 이제 죽어도 눈을 감게 되었다. 애비를 이대로 죽일 작정이냐” 하며 펄펄 뛰었다. 하는 수 없이 만나보기만 하기로 했다.

상대 여성을 만난 자리에서 김씨는 아예 이야기해버렸다. “죄송합니다만 제 마음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저의 오른쪽 가슴에는 아내가 묻어있고 왼쪽 가슴에는 아들녀석이 묻어있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사정을 설명했다.

그 날 저녁 난리가 났다. 소개한 사람이 아버지에게 전화한 것이다. 김씨의 말을 그대로 전하면서 준비도 안 된 사람이 왜 나왔느냐고 화를 낸 것이다. 아버지는 김씨를 불러서 칼을 앞에 놓았다. “이 자리에서 너와 내가 함께 죽든지 아니면 내 눈 앞에서 사라져버려라. 너 같은 아들을 두어 무었하냐.” 김씨는 용서를 빌려고 했으나 아버지가 너무 완강했다.

화 등을 그럴 때 즐겨 쓰던 식물로 정착민들이 주먹, 가구 등 일상의 모든 것의 재료로 사용한 삶 자체였고, 우아한 노란 색조의 향기로 인하여 국민이 사랑받는 나라꽃이 되었다.

꽃은 우리 문화작품의 시로 삶 속에 녹아 있기도 하다. 김춘수의 '꽃'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꽃이 되는 사람으로 다가오지만 김영랑의 '모란'은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는 소망을 얘기한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 울분어린 민족의 정서를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라는 의지로 승화해 내고 있으며,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는 모진 고초를 견뎌낸 누님 같은 완숙함을 국화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뭇나 해도 꽃은 아름다움과 함께 향기가 있어 더욱 매력적이다. 그런 꽃들이 점차 향기를 잃어가고 있어 안타깝게 한다.

미국 버지니아대학 호세 푸엔테스 환경과학과 교수는 문명의 산물인 대기오염으로 인해 1km를 날아드는 꽃향기가 200~300m에 머물러 꽃의 꿀을 찾지 못하는 벌들이 대규모 폐사하는 일들이 잦다고 한다. 벌이 없어지면 결국 꽃들도 생식을 못해 사라지고 만다. 꽃 없는 산천을 한번 떠올려 보자. 이제 꽃은 환경이며 우리의 미래다.

업울 녹이는 길

그 길로 집을 나왔다. 살기가 싫었다. 기차를 타고 먼 지방으로 가서 산으로 들어갔다. 가다보니 절이 나왔다. 절에 가서 스님에게 일해 드릴 테니 며칠만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다 산에서 목숨을 끊을 작정이었다. 다음날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다. 남편이 사고로 죽은 집이라는 것이었다. 이상한 마음이 들었다. 일하며 듣는 경 소리가 너무나 슬프게 들렸다.

저녁에 스님이 불렀다. “거사님, 무슨 일 있으시지요.” “왜 물으세요, 스님. 일요요.” “아까 다른 집 제사인데 거사님이 내내 마음으로 울고 계시던데요.” 스님의 자비로운 미소에 갑자기 역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참고 참던 슬픔이 터져 나와 자기도 모르게 목 놓아 울고 있었다.

사연을 들은 스님은 인연법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돌아간 두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 날부터 김씨는 불교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자살하는 것은 먼저 간 아내와 아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자신의 업도 녹이고 가족들의 업도 녹여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부지런히 정진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꿈에 아내와 아들이 행복하게 웃으며 내는 것을 보았다. 십년이 지난 지금 자신은 면사람이 되었다.

“그 일이 없었다면 평생 부처님법을 알려고 했을까 싶어요. 다음 생에는 좋은 인연으로 만나 아지요.”

김씨의 얼굴에 사고의 흉터 위로 잔잔한 미소가 번져나갔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불자의 눈

미얀마에 자비를 보내자

동남아시아 지역의 불교국가인 미얀마가 사이클론 나르 가스에 초토화가 됐다. 민주화를 요구하며 수많은 스님들이 거리로 나섰던 것이 불과 몇 달 전의 일이다. 군정(軍政)이 정국을 유지하며 국내에서 불교 있는 민주화 바람을 잠재우는 불안정한 상황에 엄청난 자연재해를 입은 것이다. 그래서 피해 규모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미얀마의 국내 사정이 열악하다보니 세계 각국의 인도적 지원과 구호단체들의 손길이 피해 현장에 당도하는데 이중 삼중의 걸림돌이 있다는 외신은 우리를 우물하게 한다.

한국의 불교계는 미얀마의 엄청난 재난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는다. 더구나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이즈음에 한국의 불자들은 봉축의 환희에만 젖어 있지 않고 재난을 당한 미얀마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조계종이 애도문을 발표하고 긴급성금을 주한 미얀마 대사에게 전달한 것은 매우 교훈적이다. 또 지구촌 공생회와 로터스 월드, 불교 인권연대의 불교평화연대의 모금운동도 빛나는 보살행이 아닐 수 없다.

불자는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개인의 복락과 특정 국가와 인종의 행복을 위한 잔치로 규정하지 않는다. 우주 공간의 일체만물이 함께 성불하기를 염원하며 일체제물이 일체 중생의 다른 이룸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믿음은 이웃과 나를 돌이 아니게 여기는 실천행의 뼈대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미얀마에서 들려오는 가슴 아픈 소식을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된다. 온 마음으로 아프고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해 '난타의 등'을 밝히는 심정으로 모금운동에 동참해야 '참불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호스피스 교육 활성화 되어야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죽음을 거부하거나 피할 사람은 없다. 불교는 죽음을 거부하거나 피해야 할 두려움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죽음을 연기적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부처님도 육신의 영원한 삶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생과 사의 이치를 밝혀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큰 지혜를 얻은 분이다. 많은 선사들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경지에서 노닐었다. 죽음을 맞아 얼마나 평온한가에 따라 공부의 크기를 가능하기도 했다. 실제 좌탈과 입망으로 죽음을 연출하며 무인의 법문을 남긴 선사들의 일화는 수없이 많다. 불교의 죽음관은 바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다. 또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 것도 불교의 독특한 신념이다.

그런데 최근 임종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는 달리 불교계의 호스피스 교육 현장은 매우 썰렁하다고 한다. 교육 시설도 없거나 그나마 있는 시설에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불자들이 없다는 것이다. 나름대로의 홍보와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이 없진 않지만 호스피스 교육에 대한 홍보와 이해의 부족이 낳은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대체적으로 포교기반이 약한 현실에서 복지활동의 현장은 매우 중요한 포교의 거점이 된다. 반드시 포교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복지 현장은 세대와 계층을 떠나 중요한 인연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곳이라는 틀림이 없다. 늦었지만 포기할 때는 아니다. 임종간호는 물론 고행과 사회에서의 노인포교 정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스님들이 불자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친절하고 따뜻하게 안내하는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천도의 중요성”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수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어날 때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천축, 연축 인제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르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경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또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시키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문님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벌케어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이른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이쁜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벌케어 크림이 항상 통증을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글로벌케어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벌케어 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관절이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용도 없었던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졌던 그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에도 되는데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글로벌케어 크림을

발라주겠다고 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름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룰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어떤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팔꿈치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펜을 잡지만 팔꿈치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람에게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ml×2개, 1set 가격 35,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